

기업 보조금 신청 2배 ↑

지방 이전 · 공장 신설로 전년대비 147.1% 급증 “투자 심리 회복 조짐”

올해 1분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을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요가 전년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중견기업 17개사가 257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과 2014년 1분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이 이어졌고, 전년 같은 기간 104억원(6개사)과 비교하면 147.1% 급증했다.

산업부는 지방투자 심리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지방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또 설비투자 보조율을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연초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2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하고, 최근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인 수출 감소율도 3월 들어 한 자리수대로 축소되는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이들 기업은 3년 내 보조금을 포함한 총 2736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68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15개며, 유형별로는 지방이전이 3개사, 지방 공장 신·증설이 14개사

로 나타나 수도권 기업보다 지방기업의 투자가 활발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5개사 가장 많고, 충북과 광주가 2개씩, 대구·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 등이 각각 1개씩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 ▲국내 복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에서 설비는 최대 24%, 입지는 최대 40%까지 지원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신산업을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보조율을 2%포인트 우대 적용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투자에 나설 경우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10%포인트 추가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주 기자



손님은 언제 오려나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옛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상인이 손님 기다리고 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9일까지 ‘우리역사 알기’ 참가학생 모집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오는 5월14일과 6월11일 전주전통문화연구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6 우리역사 알기’ 참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역사 알기’는 청소년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접하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비들의 생활양식을 체험하는 전통문화연수,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역사특강, 위인들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특강 등으로 실시된다.

참여는 도내 중·고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전북은행 홈페이지

(www.jbark.co.kr)와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카페(cafedam.net/jbankwikidg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jh0936@jbark.c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9일까지 중·고등학생 각 30명씩 선착순으로 하며, 자세한 문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250-7496/7154로 하면 된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이번 기회에 도내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경진원, 남미시장 개척활동 나서

도내 중기 8개사 참여 10일까지 수출계약 진행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 이하 경진원)은 5~10일까지 9일 동안 남미시장 개척활동을 펼친다. 이번 남미개척활동에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8개사(특장차, 기계부품)가 참여했다.

특히 이번에는 특장차를 생산하는 (주)카샘이 바이어를 직접 상담하고 현지공장을 찾아가 수출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카샘은 전년도에 경진원에서 개최한 해외바이어 및 에이전트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1차적으로 페루의 유력바이어를 상담했다.

이어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과 교류를 통해 계약성사 단계에 이르러 이번 상담회에 참여하게 됐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중남미는 기업의 시장이면서도 원거리에 위치해 수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도내 수출의 새 길을 열 수 있는 전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수출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업무제

휴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모든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홍 원장은 또 “이번기에는 중동과 중국 시장 개척활동에도 지역의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해 해외 현지수출상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해외시장팀(063-711-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서는 도내업체 68개사가 참여해 7개국 19개사 바이어를 대상으로 총 수출상담액 888만불, 수출성사 27만불을 달성했다.

/신광영 기자

익산국토청, 1/4분기 5743억원 집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말 기준 5,743억원(38%)을 재정집행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집행계획은 1조5,118억원이며 이번 집행은 1/4분기 정부 재정집행목표인 32.2%보다 5.7% (875억원)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도로사업 2,659억원, 하천사업 1,658억원, 지역개발사업 981억원, 국도관리사업 445억원을 집행했다.

익산국토청은 2/4분기에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관리로 재정집행 목표액 9,146억원(60.5%)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우선 사업별 공사 현장 실무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하도급사 대금지급 실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해 체불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안경호 관리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리온 ‘스윙칩 간장치킨맛 출시

오리온이 올해 기존 브랜드에 새로운 맛을 더해 내놓은 신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이 지난 3월 출시한 ‘스윙칩 간장치킨맛’이 출시 1개월 만에 누적판매량 200만개를 돌파했다.

이 제품은 스윙칩만의 물결모양 골곡에 간장치킨 양념이 배어 있도록 한 감자 스낵이다. 오리온 측에 따르면 현재 하루 최대 판매량 20만 개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리온이 초코파이 탄생 42년 만에 처음 내놓은 자제 제품 ‘초코파이 정(情) 바나나’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성주 기자

오투기 진짬뽕, 판매량 1억개 돌파



오투기는 프리미엄 짬뽕라면 오투기 진짬뽕이 출시 173일(5개월 19일)만에 누적 판매량 1억개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초에 약 7개씩 팔린 셈이며 1억개의 면발은 길이(1개 17m)로 환산하면 지구를 42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진짬뽕 1억개에 사용되는 오징어는 총 620톤으로 약 207만마리에 이른다.

오투기는 진짬뽕의 인기 비결로 “가장 먼저 성공한 제품을 베끼는 미투(me to)전략이 아닌 끊임없는

연구 노력과 변화 추구 전략”을 꼽았다.

업체 측은 “전국 짬뽕 맛집 88곳을 방문하고 육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까지 건너가 짬뽕 맛집의 빈 상자를 찾았던 노력, 분말스프보다 제조공정이 까다롭지만 국물 맛을 살리기 위해 액상스프로 변신한 시도 등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고, 불황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진 점, 국민배우 황정민씨의 진짬뽕 광고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비결이다”라고 덧붙였다.

오투기는 1억개 돌파를 기념해 ‘진짬뽕과 함께 감사의 마음 전달하기’ ‘오늘 맛으로 행복한 세상, ‘뚜기네 라면이야기’ 등을 회사가 운영하는 SNS에서 진행한다.

/이성주 기자

이스타항공, 특가항공권 제공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은 봄맞이 특가항공권 제공 행사를 추진한다.

2016 춘계올림픽 이스타항공 특가 릴레이 행사이며 전 노선의 항공권을 올림픽 바통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어져 진행된다.

우선 국내선 특가 항공권을 4월10일까지 제공하며, 이후 국제선 특가 항공권은 4월11일부터 17일까지 제공한다.

또 중국노선 특가 항공권을 4월18일부터 24일까지 제공하는 행사를 릴레이 형태로 진행한다.

해당 행사를 이용하면 국내선은 편도 1만3,000원(총액운임)부터 제공받게 된다.

국제선은 나리타(도쿄) 편도 9만8,000원(총액운임), 오키나와 편도 9만3,000원(총액운임), 대만 타이베이 편도 8만7,000원(총액운임), 방콕 편도 11만4,200원(총액운임)부터 제공한다.

제남, 상하이, 하얼빈 등 중국 노선은 편도 9만2,000원(총액운임)부터 제공한다.

이번 2016년 춘계올림픽 특가 항공권은 2016년 6월7일부터 6월23일까지 이용 가능한 항공권이다.

특가 릴레이 항공권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jet.com) 및 모바일웹(앱)에서 확인 및 이용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전북중기청,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신규 참여대학 모집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인택)은 6~28일까지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대학(전문대 및 일반대)을 모집한다.

올해 선정규모는 신장대학에 대한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대학은 산학맞춤교육, 현장실습 1팀-1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운영비용으로 연간 2억원 내외,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산학협력 육성 인포라 조성 이 우수하고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이공계 학생이 참여 가능한 대학이다. 희망대학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rta.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어 산학협력 유형 3개(협회·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해 관련 협회·단체 또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수출기업과 고용 우수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을 경우 평가시 우대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